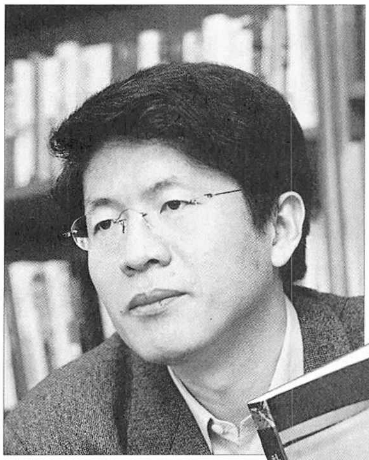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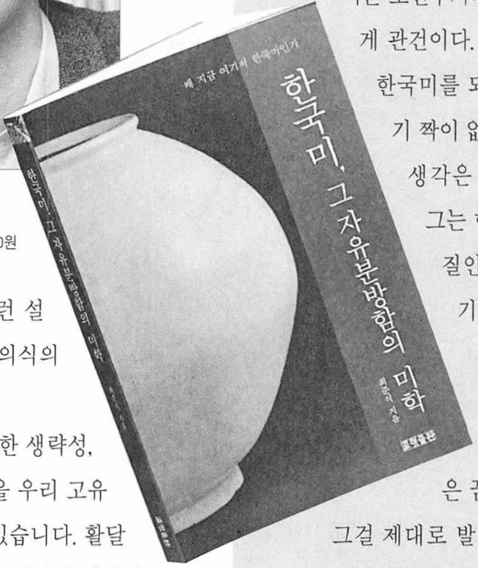
한 종교학자가 펼치는 독특한 전통미학론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펴낸 최준식 교수

"한국사람들은 질서를 생득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질서정연한 상태를 못견디고 파괴하려 들지요. 양반문화는 질서를 존중한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궁궐조차 대칭 · 조화를 꾀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준식 교수



효형출판/A5신/272면/9500원

지난 97년《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사계절)를 통해 독특한 한국인론과 한국문화론을 제기했던 최준식 교수(44, 이화여대 한국학과)가 이번에는 독자적인 한국예술론을 펼쳤다. 최교수가 우리 예술에 본격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현장중심으로 섭렵한 예술공부의 결실

'한국문화란 무엇인가'라는 필생의 화두를 좇다가 그렇게 됐는데, 한국문화를 한국적이게 만드는 것을 찾아서 전공인 종교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세계를 거쳐 다다른 곳이 바로 예술이었다.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효형출판)은 최교수가 지난 5년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섭렵한 예술공부의 결실이다. 그는 '자유분방함'이라는 주제와 '조선후기'라는 시기에 주목해 음악 · 춤 · 미술 · 도자기 · 건축 등 여러 예술 장르를 훑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서를 생득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질서정연한 상태를 못견디고 파괴하려 들지요. 양반문화는 질서를 존중한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궁궐조차 대칭 · 조화를 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과 종묘는 겉보기만 좌우대칭 구조지, 안을 들여다보면 삐뚤빼뚤하다는 것이다. 종묘는 아예 정문과 중심건물의 축이 어긋나 있다. 별궁은 더 자유분방하다. 창덕궁은 아무리 터 자체가 굴곡졌더라도 정문(돈화문)을 지나 정전에 이르려면 두번이나 방향을 틀게 돼 있다. 이런 설계를 최교수는 고유한 미의식의 반영으로 설명한다.

"자유분방함 외에 과감한 생략성, 자연친화성, 비균제성 등을 우리 고유의 미적 감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달한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신명의 원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분히 절망적이다. 최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이 빠져 있다고 일갈한다. 때문에 애국가를 영어 발음형식으로 부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영어문장은 정관사나 부정관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못갖춘마디'의 노래가 자연스럽지만, 애국가가 그런 형식을 답습하는 것은 꼴불견이라는 얘기다. 목불인견이 어디 이뿐이랴.

"국악기로 애국가를 반주하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연주방식을 취하고, 어떤 양식을 따르느냐가 중요하지요. 만원권에 그려진 세종대왕 초상화도 우리 회화의 극사실주의 전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림이죠."

'문화적 변용력' 회복해야

이런 현상은 모두 전통미의 단절이 낳은 결과다. 최교수는 일제식민통치를 겪으며 유구한 우리 전통미의 맥이 끊겼다고 진단한다. 그가 조선후기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다. 최교수는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한국적 미의 대부분은 조선후기 예술품이 지닌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한다. 조선후기의 예술품은 우리문화의 총화인 셈이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한국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의 미학을 제대로 아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한국미를 되찾을 방법이 막막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최교수의 생각은 의외로 낙관적이다. 그는 한국문화의 또다른 특질인 '문화적 변용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겉으로는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속에서 문화적 변용력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문화적 변용력은 남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에 맞게 재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최교수는 그 예로 태권도를 들었다. 가라데를 모델로 삼았지만, '발차기' 요소를 가미해 탁월한 격투기로 승화시켰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문화적 변용력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전통미에 대한 공부를 제안한다. 조선후기 사람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도 조각보에 몬드리안의 추상화 뺨치는 문양을 새겼지만, 고유의 미적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공부를 통해서 미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최성일 기자